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배포 : 2023년 10월 22일(일)

윤석열 대통령,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
- 우리 정상의 첫 국빈 방문 / 1년 내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성사
- 우리 기업 진출 5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지속 확대·발전에 합의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22 일) 오후 리야드 야마마 궁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국빈 방문 일정을 갖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식 환영식)

회담에 앞서 야마마궁 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사우디측은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야마마 궁전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가 호위하며 동 차량을 정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야마마 궁 내부로 입장해 사우디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사우디 회담)

이어 개최된 회담에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사우디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우디를 국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올해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국민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의 사우디 국민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고, 사우디의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중점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S-Oil 사한 프로젝트 기공식 개최(23.3월), 벤처 투자를 위한 1억 6천만불 규모 한-사우디 공동펀드 조성(23.6월),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리야드 개소(이번 순방 계기) 등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설립에 합의(위원장 : 윤 대통령 - 모하메드 왕세자)

특히, 올해 6월 현대건설이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아미랄 프로젝트'를

- 2 -

수주한 것은 사우디 건설 진출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네옴, 키디아, 홍해 등 메가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왕세자와 사우디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은 사우디의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며, 관광, 문화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제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에너지 시장의 핵심 국가이자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시장안정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관광, 스마트팜, 특허, 해운 및 해양수
산, 통계, 사이버안보, 식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
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
가자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 등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이 10.24.(화)~26.(목) 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미래투자이니셔티브의 첫째날 주빈으로서 특별 세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의 참석이 미래 투자이니셔티브의 위상과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빈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종료 후 개최된 국민 오찬에서 약 1시간 동안 양국의 산업, 사회, 문화, 관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친밀한 분위기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상호 유대와 신뢰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번 국민 오찬은 회담에 배석한 수행원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협정 및 MOU 서명식)

국민 오찬에 이어진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는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임석 하에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 한-사우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 양해각서(MOU),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통계분야 협력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및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 정상 입석 하 서명된 협정 및 MOU 주요내용은 별첨 참조

이외에도, 한-사우디 투자 포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 행사 등 계기에 다양한 분야의 MOU와 계약 총 60여 건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첨 부 : 정상 임석 하 서명 문건 주요 내용. 끝.

첨부 : 정상 입석 하 서명 문건 주요내용

- ① 외교관, 특별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서명자) (한) 외교부 장관 - (사우디) 외교부 장관
 - (주요내용)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대상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사항 규정
- ② 한-사우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 (서명자) (한) 외교부장관 - (사우디) 외교부 장관
 - (주요내용) 작년 11월 양국이 설립에 합의한 양국 지도자간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의 목적, 임무, 협력 범위 등 세부 사항을 규정
- ③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 (서명자) (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 (주요내용) 수소 생산-유통-활용-제도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 ④ 통계분야 협력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 (서명자) (한) 경제부총리 - (사우디) 경제기획부장관
 - (주요내용) 통계생산 경험 및 통계자료 공유, 새로운 통계발전 방향 및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 등 규정

⑤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서명자) (한) 외교부장관 - (사우디) 보건부장관
- (주요내용) 식의약 허가·관리, 공급부족, 혁신기술 관련
규정·행정절차 등의 교환 및 관련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